

# 판소리의 묘미 피아노 선율에

발달장애 불자 음악가 최준 '피아노 병창 공연'



5월 25일 오후 4시 나루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앞둔 발달 장애 청년 최준 군은 피아노 병창 공연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스물네 살 청년 최준은 일곱 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발달장애 청년이다. 하지만 절대음악의 소유자인 그는 3시간 짜리 판소리 흥보가를 외워 완창하고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악보 한번 안 보고 피아노로 연주한다. 최준은 5월 25일 오후 4시 나루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피아노 병창공연으로 7번째 무대를 갖는다.

'2013 피아노로 판을 만든다' 음반발매 기념 콘서트로 최 군은 △첫사랑 △정몽길 가다 △광화문광장의 분수 △지하철 환상곡 등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흥보가 중 화초장 대목 △춘향가 중 갈까부다 대목 △심청가 중 추월만정 대목 등을 피아노 병창으로 선보인다.

최 군이 이렇게 한 명의 음악가로 서기까지는 수많은 고비가 있었다. 특히 대학 입학의 앞두고는 마음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다.

어머니 모현선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비학교 수료(판소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병행해야 하는 입시제도 때문에 한예종 입학이 좌절되는 참담한 상황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후 실기만으로 입학이 가능했던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하게 되

면서 우리 준이가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었죠"

바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면서 최 군은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는 독특한 무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최준 군의 사연은 세간에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최 군은 지난해에는 KBS 인간극장 '아들아, 너의 세상을 들려줘'에 출연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최준 군의 가족은 19년째 한마음선원을 다니며 신생활을 해왔다. 최 군이 한길로 매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신생활 덕분이었다고 어머니 모 씨는 말한다. "준이가 치료 목적으로 음악을 배웠는데 그것이 지금은 준이의 직업까지 되었죠. 이 모두가 대령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 군은 일곱 살 때부터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펼쳐놓고 저녁마다 독송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의 느낌을 일기처럼 작곡하는 최 군은 자신의 음악적 성과를 타인들과 나눌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앞으로도 계속 음악에 매진할 계획이다. (02)722-027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중국 '실험수묵'의 진수를 만나다

광주시립미술관 장위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중국현대미술가 장위(張翊) '修·行'전을 5월 26일까지 분관 제3·4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장위는 중국 현대미술발전의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실험수묵운동의 주요 창시자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이 탐구해오고 있는 실험수묵의 시각적 표현방식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심적 체험과 시각적 체험을 융합시켜



장위의 '지인'

새로운 시각도상으로 전환시킨 작가의 '영광' '매일 신보' '지인' 시리즈 등은 관람객들에게 수묵 작품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062)613-7150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사자-용

# '산예향로'는 보주 가진 사자모양 용

불을 좋아해 향로 뚜껑에 장식

고려향로 두 개가 있다.(그림①-1, 그림②-1) 뚜껑에 하나는 누가 보아도 사자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보아도 용이다. 사자는 뿔도 없고 얼굴 모양이 용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사자를 찬찬히 살펴보면 목부분에 갈기 같은 것이 있는데 용에서 보던 제1영기씩모양의 도르르 말린 형태이다. 얼굴을 위에서 보면 눈썹이 제1영기씩으로 되어 있다.(도 ①-3) 일반적으로 용의 눈썹은 제1영기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보주이다. 사자는 보주를 지닐 수 없다. 보주를 지닐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존재는, 석가여래-관음보살-지장보살-용 등이어서 아무나 지닐 수 없다.

그러니 보주로 보아서 사자는 어림도 없다. 그렇다면 용인가? 사자모양인데 용이라 할 수 있을까? 호승지는 용의 아홉 아들 가운데 불을 좋아하여 향로 뚜껑에 장식한다는 용의 이름을 산예(俊猷)라고 불렀는데 사자를 일컫는다. 북송의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경(徐兢)은 산예출향(俊猷出香)이란 말을 썼는데 바로 이런 향로에서 향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리라. 그러면 왜 사자 모양인가? 용은 변화무쌍하여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용은 불황의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백호의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모습에는 반드시 용의 속성, 즉 용성(龍性)을 지녀야 한다. 그 용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주이다. 그리고 각 부분이 영기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우선 동물모양으로 보주를 지니고 있으면 무조건 용으로 보면 된다.

지난 가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천하제일 비석 청자전'에서 항상 보아온 '고려청자 사자향로'를 살피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저 둥근 보주를 붙들고 있으려니 했는데, 무수한 보주를 음각한 무량보주가 아닌가!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 이제는 사자가 아니고 용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그림 ①-4, 5) 그러므로 '고려청자 사자향로'라고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용어를 '고려청자 용향로'라고 고쳐야 한다. 더구나 꼬리는 제1영기씩, 제2영기씩, 제3영기씩으로 전개하여 가는 영기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그림 ①-2) 용의 꼬리는 예부터 꼬리가 제1영기씩이나, 제2영기씩이나 제3영기씩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만물생성의 근원인 꼬리에서 용이 탄생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우리는 꼬리를 용의 끝으로 보아왔지 시작으로 보



그림 ①-1



그림 ①-2



그림 ①-3

지 않았던 것이다.

여래의 현신이 피어오르는 용향로

누가 보아도 용으로 뚜껑을 삼은 고려청자 향로가 있다.(그림 ②-1) 그 용은 오른손으로 역시 무량보주를 들고 있다. 입체적으로 조각하였으며 정상에는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그림 ②-2) 그 큰 무량보주 입에서도 향기(香氣)가 피어오르도록 한 것이다. 두 작품은 형상은 다르지만 모두 용의 모습이다.

또 하나의 향로의 예가 있다. 물론 사자모양이다.(그림 ③-1) 그러나 이 사자는 두 앞발로 두 발등에 놓인 작은 보주를 쥐고 서있다.(그림 ③-2) 즉 용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자로 알고 있는 수많은 동물 가운데에 용으로 보아야 할 도상이 많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일 보주가 없더라도 사자 모습 가운데에 용일 가능성이 더러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래를 현신시키는 향기가 피어오르는데 사자를 조각할 리 없다는 것이다. 병향로(柄香爐)의 사자 모양도 말할 것도 없이 용이지만 삼국의 학자들은 사자진(獅子鎊)이라고 부른다.(그림 ④-1, 2) 그런데 입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지 않는가. 꼬리가 아니고 수많은 보주를 꼬리모양으로 만들어 무량한 보주가 입에서 나오는 형국을 그렇게 표현했다. 사자가 아니고 용이다. 용의 모습은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게 인식해나가면서 용의 개념이 조금씩 정립하여 가는 것이다. 용의 입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신비로운 광경이며 바로 그 향기에서 여래나 보살이 화생한다는 진실을 최근 저서(수월관음의 탄생)에 자세히 증명하였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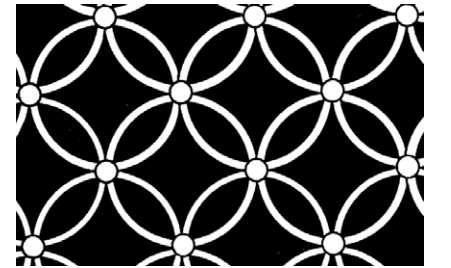


그림 ①-5



그림 ②-1



그림 ②-2



그림 ③-1



그림 ③-2



그림 ④-1



그림 ④-2

새로운 **비방법!** 더욱 강력해진 **방편술!**  
 일체 마장을 **소멸**시키고, 고통받는 인간 만사를  
 단번에 풀어내는 **방토법 대공개**합니다.

# 天氣福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거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식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불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百超律曆學堂 041)943-6882/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